

“여름 보너스 쏠쏠하네”... 상장사 중간배당 ‘역대 최대’

안정적 수익 기대 ‘배당주’ 주목
분기배당 예상 상장사 총 88곳
배당수익률 높은 수준까지 상승
코스닥, 예상수익률 3% 넘기도

올해 중간배당에 나서는 국내 상장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간배당이란 상장사가 결산 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간에 하는 배당을 말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며, 통상 7~8월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이며, 오는 28일

까지 해당 종목에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배당이 예상되는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는 총 88곳(우선주 포함)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65곳, 코스닥 23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배당이 주춤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중간배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200 상장사의 중간배당 규모(우선주 제외)는 ▲2017년 1조9403억원 ▲2018년 3조4806억원 ▲2019년 3조6297억원 ▲2020년 2조8234억원 ▲2021년 4조5824억원으로 늘었다.

코스피200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

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POSCO)홀딩스, KB금융, SK이노베이션, 에스오일 등이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또 크레비스(3.82%), 엠브레인(3.80%), 리드코프(3.42%), 씨앤티스정진(3.09%) 등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중간배당 예상수익률이 3%가 넘는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주가 회복 과정에서 고배당 종목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금리 급등세로 인해 저평가 및 고배당 등 스타일의 성과가 높은 상황”이라며 “조달 금리가 높을수록 이에 비

례하는 확정 기대수익률이 높은 스타일의 종목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고배당 종목은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가정 하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라며 “절대적 배당수익률이 낮더라도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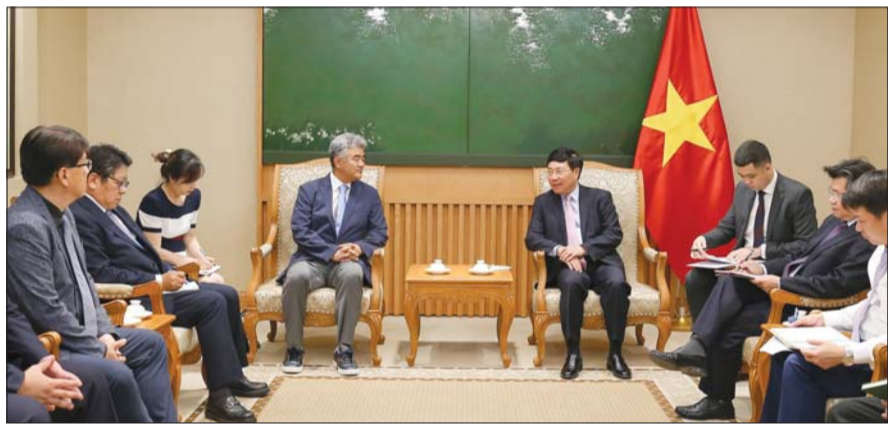
지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중간배당을 한 코스피200 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한온시스템, 쌍용C&E, 케이씨시(KCC) 등 7곳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코스피200 6월 분기배당 예상

종목명	중간배당수익률(%)	연간배당금액
삼성전자	0.62	1,590원
SK하이닉스	0.32	1,621원
현대차	0.58	5,598원
POSCO홀딩스	1.5	16,367원
KB금융	0.98	3,287원
SK이노베이션	0.45	2,103원
신한지주	1.01	2,339원
현대모비스	0.5	4,556원
SK	0.66	8,545원
하나금융지주	1.68	3,250원
S-Oil	1.37	5,859원
SK텔레콤	1.43	3,434원
우리금융지주	1.36	1,047원
롯데케미칼	0.31	5,158원
LG유플러스	1.87	663원
CJ제일제당	0.27	5,293원
한온시스템	0.93	359원
쌍용C&E	1.58	440원
두산발켓	1.99	1,240원
현대해상	2.36	1,534원
KCC	0.34	6,350원
SK케미칼	0.8	3,000원
한샘	0.62	1,771원

자료/미래에셋증권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왼쪽)이 팜 빙 밍 베트남 수석 부총리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베트남 사업 확대 ‘젠걸음’

현지 고위급 관계자들 면담

대우건설이 그룹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대우건설 해외부동산개발 실무진들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정원주 부회장은 전날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수석 부총리를 면담해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의 진행 과정을 의논하고 신규 투자 확대

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 부회장은 응웬 쯔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플랜트·토목·건축분야 건설, 베트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1일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박닌성을 방문해 당사기장을 면담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가파른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우건설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20년 업력의 기술력... 반도체 장비 1세대

IPO 간담회

영창케미칼
반도체 산업용 소재 포토레지스트 양산
세계적 토털 화학솔루션 기업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산업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영창케미칼이 다음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영창케미칼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영창케미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공급하는 화학소재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이다. 본사 및 공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다.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국산화 1세대 기업으로 꼽히며, 특히 반도체 산업용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해 수입 대체에 성공하면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 고도화, 생산능력 확대 등에 주력해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며 “4차산업의 핵심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창케미칼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토털 화학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제품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유기 하드 마스크, 슬러리, 린싱 솔루션, 디벨로퍼 등이며 최근 ‘EUV 노광 공정용 린스’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오는 하반기 중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창케미칼은 20년 업력의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학소재 생산뿐 아니라 신소재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제품 개발

까지 마친 뒤 양산을 준비 중인 ‘EUV(극자외선) 노광 공정용 린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패턴 쓰러짐 방지, 결함 제거 등에서 개선 효과가 있어 공정 마진 폭 확대에 중요한 소재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량, 6G, 인공지능(AI) 등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제품 성능 개선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시장점유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창케미칼은 선제적 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역시 생산설비, 시설확충, 연구개발 등에 활용한다.

또한 영창케미칼은 올해를 해외 본격 진출의 원년으로 삼아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에 현지 영업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고객사의 해외 생산라인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신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외 매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국내외 해외가 각각 72%, 28%다. /이영석 기자 ysl@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스마트 환경서 서비스 최적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해 새로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서비스최적화를 위해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고, 데이터 시각화와 직관적인 구성을 통해 방문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페이도입을 통해 모바일 간편 기부, 기념일 기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 가입 등의 기능을 추가해 보다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온라인

기부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기부자, 장학생 등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방문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재단의 사업과 활동 스토리 등을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홈페이지 리뉴얼과 동시에 재단의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는 영문 홈페이지도 신규 오픈해 국내외 외국인들도 재단의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 순항

특급호텔급 커뮤니티 갖춰

한화건설은 천안아산역 인근에 분양 중인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지하 5층~지상 70층, 3개동, 전용면적 99~154㎡, 총 1162실이다.

전용면적별로는 ▲99㎡582실 ▲117㎡347실 ▲124㎡104실 ▲126㎡119실 ▲148㎡5실 ▲154㎡5실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한 특급호텔급 커뮤니티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다. 회사의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FORENA)’의 가치가 더해져 충청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카페, 키즈룸,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골프트레이닝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천안아산역(KTX·SRT), 아산역(1호선)이 위치해 있다. KTX 이용 시 서울역까지 40분대, SRT 이용 시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펜타포트점, 이마트 트레이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70층 스카이라운지 조감도. /한화건설

더스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지역 최고층 높이에 호텔급 부대시설을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